

‘통상임금 소송 대란’ 오나...지역 기업들 초긴장

“조정수당·대우수당·급식보조비도 통상임금 포함” 광주지법, 도시철도공사 직원 426명에 승소 판결 노조 줄소송 움직임...재정 열악 지역기업들 곤혹

광주지역 경제계가 ‘통상임금’이라는 초 대형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갔다. 광주 법원이 공기업의 통상 임금 소송과 관련, 상여금 뿐 아니라 조정수당, 대우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 맞춤형 복지비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다. “정기적(定期的)·일률적(一律的)·고정적(固定的)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부합하는 결과임에도, 광주 법원

재판을 지켜보며 대응 방향을 결정키로 했던 지역 기업 노조가 적지 않아 향후 추가 임금 청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특히 공기업들은 열악한 재정 형편에 엄청난 규모의 추가비용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노심초사 하고 있는 분위기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0일 광주도시철도공사 이모(46)씨 등 전·현직 직원 426명이 낸 통상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도시철

도공사를 상대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정수당 등 13억7900만원 상당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례를 적용, 상여수당, 조정수당, 대우수당, 급식보조비·교통비, 맞춤형 복지비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 직원들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이미 퇴직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재산정 절차를 거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도시철도공사는 노조와의 단체협약, 보수규정 등을 근거로 상여수당의 경우 매년 200%, 조정수당은 ‘3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 비율로 지급’해왔다. 도시철도공사는 또 전직원에게 매월 12

만원의 급식보조비를 지급하고 이사를 제외한 직원에게 매월 10만원의 교통비 지급도 해왔다. 도시철도공사는 재판 과정에서 “상여금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노사간 단체협약 등이 있었던 점과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안겨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조래, 신의칙에 위반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대중컨벤션센터(25명)·교통약자지원센터(37명)도 비슷한 사안으로 7500만~3억원 가량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하겠

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광주도시공사·광주환경공단 등은 당장 소송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시공사는 196명이 참여하는 소송을 준비중이며 환경공단은 260명이 소송에 나설 태세다. 다른 민간 기업들의 소송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반면, 공기업측은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에 대한 추가 부담 등을 감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당장,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지난해 36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고 직원들의 소송 요구 금액이 올 해 증액 가능한 인건비 범위(4억1100만원)를 초과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음주운전 말렸어야지...방조 동승자도 형사처벌

여수경찰, 2명 입건

사망사고 운전자는 구속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뿐 아니라 동승자들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했다. 여수경찰은 10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로 임모(23)씨를 구속하는 한편, 임씨 차량에 동승했던 박모(24)씨 등 2명에 대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5일 새벽 6시1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만취 상태에서 박씨 등을 태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여·7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특히 경찰은 임씨의 음주 운전을 적극적으로 밀리지 않고 방조한 책임(형법 32조)을 물어 박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수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부터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도 술을 팔았거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에 동승한 사람에게 방조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박기용 수습기자 pboxer@



구호용품 행기는 적십자사 회원들
대한적십자 광주·전남지사 회원들이 10일 오전 북구 매곡동 강당에서 태풍 및 호우피해민들의 구제를 위한 구호용품을 담고 있다. 담요, 의복 및 세면 도구 등이 들어있는 구호용품 박스는 이날 500상자가 제작됐으며 광주·전남지역은 피해를 대비해 1000박스를 상시 비축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세월호 실종자 수색 옛새만에 재개

태풍 피항 바지선 등 사고해역 이동...잠수작업 ‘언던’ 배제

제8호 태풍 ‘너구리’ 북상으로 중단된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옛새 만에 재개된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지난 5일 중단된 세월호 선체 수색을 10일 오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 목포와 영암으로 피항한 바지선과 소형·중형 함정은 기상 여건이 호전되는 이날 오후 사고 해역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바지선이 이동하고 잠수 준비 작업을 거치면 수중 수색은 11일 오후부터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책본부는 기존 언던과 88수중개발이 함께 잠수 작업을 벌이는 방식에서 88수중개발이 독자적으로 전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잠수방식에서 언던의 ‘표면공기공급’ 방식으로는 1회 잠수시 30분가량 수색할

수 있지만 88수중개발의 ‘나이트룩스’ 방식은 1시간까지 수색 시간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책본부는 설명했다. 언던의 바지선도 사고 해역에서 철수하고 88수중개발의 바지선 2척이 현장에 투입된다. 해군은 선수 구역을, 88수중개발은 해경과 함께 선체 중앙, 선미 수색을 진행한다. 민간 잠수사 비용 지급 방식도 정부가 98만원의 일당을 잠수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에서 업체의 성과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대책본부는 잠수사가 내린 공기를 배출하지 않고 정화해 재활용하는 장비인 수중재호흡기를 도입해 잠수 시간을 현재 10~15분에서 최장 6시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도=박현영기자 hypark@

구명장비 부실점검 업체

전·현 임직원 4명 첫 재판

광주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임정연)는 10일 오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 해양안전설비 전·현 임직원 4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구명장비 등 선박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지시에 따랐다”, “독립적으로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개선 건의를 했지만 묵살됐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일부 피고인의 경우 “구명장비 점검을 부실한 데 대해서는 밝혀져야 하지만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사실이 양형에 반영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지을기자 dok2000@

‘권총 조폭’

협박사건 수사하다 압수수색 권총 1정·실탄 30발 발견 광주지검, 총기 소지 조폭 첫 적발

조직폭력배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 검찰에 적발됐다. 권총을 가진 조직폭력배가 붙잡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익)는 10일 자신의 주거지에 권총 1정과 실탄 30발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광주시 북구 자신의 주거지 주방에 피닉스 압수사의 25구경 권총 1정과 실탄 30발을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A씨는 범죄단체 가입 사실 등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지만 전국구 폭력단체의 간부급 중 한 명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친구에게 채권 독촉을 하지 말라”며 A씨에게 권총으로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 사건을 수사하다 진술 번복으로 무혐의 처분한 뒤 실제 총기 소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A씨 집을 압수수색해 권총을 발견했다. A씨는 검찰에서 “지난 2006년께 지인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사하면서 이웃 집에 숨겨 들어와 자신에게 갖고 있어 달라고 했다”면서도 해당 지인의 신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실제 권총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에 총기 화학반응 등에 대한 분석을 의뢰해놓은 상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결별 못해” 석달간 여친 스토킹

“결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석달간 집요하게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피해자의 신고로 결국 철창신세. ○...1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조모(59)씨는 지난 4월 26일 새벽 3시에 서구 동천동 여자친구 손모(51)씨의 집에 찾아가 흥기를 들고 위협하고 차에 감금하는 등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폭행·감금·협박을 일삼았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첫 1년간은 남자가 여자에게 고급 외제승용차를 사주는 등 애절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단 관계가 정리된 뒤에는 상대를 찾아가 협박하거나 때리고 감금하게 되면 구속 등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주)오천경매 / 오천개발

대표, 최선규
문의, 010-3605-5000
광주시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특수물건

특수비법

만이 살 길이다!

- 특수물건(지분, 법/지, 유치권, NPL 등등)만이 정답입니다!
- 특수비법을 알아야 특수물건에 도전합니다!
- 입장/교육비 등 1200만원 투자 하십시오!
- 오직! 특수경매만을 하실 분을 모십니다!
- 단, 상담후 본사가 결정합니다!